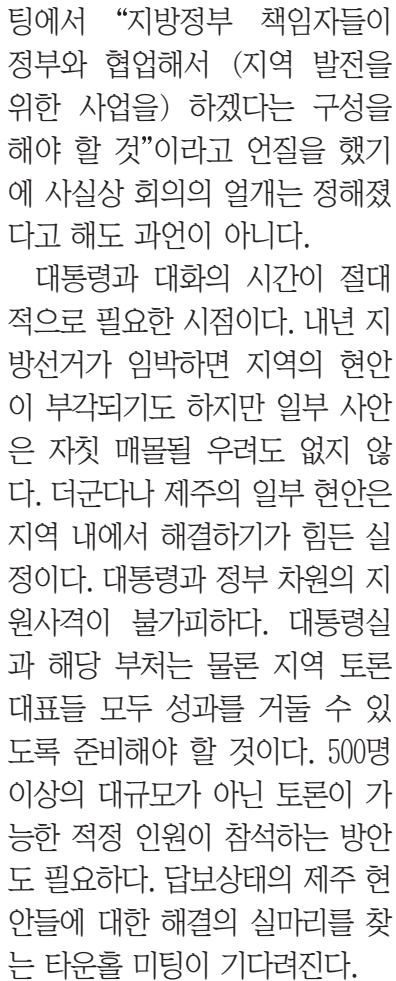


사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도 내 차량 운행 규제완화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차량 반입이 늘면 자연스럽게 방문 관광객도 증가해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어다. 문제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교통 혼잡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8월 한 달간 우도에서 대여 이륜차가 57대 늘어났다. 기존 우도 내 25개 업체가 대여 목적 이륜차 907대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해 우도 내 교통사고는 8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1건이 늘었다. 우도의 이면도로는 대부분 좁다. 관광객들은 이륜차를 타고 우도를 둘러보는 것을 선호해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다. 교통량과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 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열독률 · 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